

‘전주푸드’ 정책 가치 ‘좋아요’

김승수 시장,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서 ‘2025 플랜’ 소개

전 세계 유네스코 창의도시들이 지역생산·지역소비형 도시먹거리전략으로 추진하는 ‘전주푸드 2025 플랜’의 정책 가치에 대해 인정했다.

전주푸드 플랜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시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 유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자립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11월 전주시민들의 먹거리 주권 회복을 위해 선포했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승수 전주 시장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스웨덴 외스터순드(Ostersund)에서 진행된 제10회 2016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에 참석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54개국 116개 창의도시 대표들과 유네스코 관계자들에게 전주를 알렸다.

특히 김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의 개발 △도시-농촌간의 지속가능한 개발 △공공 공간 개발에 있어 문화의 창의성의 역할이라는 3가지 주제로 열린 시장단회의(Mayor's Round Table)에서 두 번째 색션에 참가해 ‘전주푸드 2025 플랜’ 등 전주시의 정책과 가치를 전 세계 창의도시들과 공유했다.

또한 ‘전주푸드 2025 플랜’은 이번

연례회의를 통해 전진된 각국의 65개 모범활동 사례 중 20개 창의도시 선진사례에도 포함돼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 이종간의 워크숍(Transversal Workshop) 중 ‘도시-시골 연계성 최대화’라는 색션의 발표사례로도 채택돼 창의도시 및 유네스코 관계자들에게 소개됐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이번 연례회의의 분야별 워크숍(Sub-network workshop)을 통해 오는 10월 열리는 전주포럼(2016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Jeonju Forum)과 전주포럼의 주요내용 및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김 시장의 발표에 유네스코의 창의 분야 총괄자인 조티(Jyoti Hosagrahar) 창의국장도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전주포럼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전주시와 유네스코간의 협력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티 국장은 또, 오는 10월 전주포럼에 참석해 김 시장과 면담을 가진 뒤, ‘문화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주제로 전주시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116개 모든 회원도시 는 문화와 창의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실행, 각 회원도시간의



김승수 전주시장(가운데)이 스웨덴 외스터순드(Ostersund)에서 진행된 '제10회 2016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에 참석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54개국 116개 창의도시 대표들과 유네스코 관계자들에게 전주를 알리고 있다.

경험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포함하는 네트워크의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유네스코에서는 각 회원도시에 창의도시 분야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인 네트워크 모임을 가질 것을 강력히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116개 창의도시들은 오는 2017년도 주요 활동목표로 △문화와 창의성 부분의 예술가 및 전문가의 협력 및 교류 △회원도시 모니터링과 평가시행 △신규회원도시 신청모집 △새 회원도시의 연합 및 교류 △우

수사례 데이터베이스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남반구 도시)와 창의도시간 제휴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활발한 활동을 해나가기로 의결했다.

시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오는 10월 전주포럼에서 전 세계 음식창의도시들과 국내창의도시 등과 실행 가능한 워킹플랫폼 구축을 위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도전, 나도 바리스타’

전주시, 위기청소년 위한 자격증 과정 운영

전주시가 학업중단 청소년 등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전주시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학교장 등 청소년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중학생 이상 청소년과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등 12명을 대상으로 위기청소년을 위한 자격증 과정 ‘도전, 나도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교육생 중 9명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도전, 나도 바리스타’는 위기(가능)청소년들에게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을 도와 긍정적인 진로 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9명의 청소년이 자격증을 취득해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 자격증 시험에서 어렵게 탈락한 나머지 3명도 현재 필기와 실기 시험에 재도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바리스타 자격증과정 프로그램은 전주시 CYS-Net 1388청소년지원단(복지지원단)인 문명미커뮤니케이션(위원장 문명미)에서 위기(가능)청소년의 수강료의 약 50%와 필기 및 실기 시험 응시전

행료를 후원해 진행됐다.

또한 1388청소년지원단(발견구조지원단)인 완산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2명도 추천 청소년을 프로그래밍에 참여시키기 위해 자비를 들여 자신도 함께 교육에 참여하고, 바리스타 시험에도 합격하는 결경사를 맞이하기도 했다.

도전 바리스타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평소에 바리스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카페를 운영할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리스타 자격증 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바리스타 1급 자격증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정혜선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여러 가지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도전해 성과를 이뤄내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아르바이트와 연계시켜 주는 등 청소년들이 바리스타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과학로 선형변경

11월 말까지 공사 완료

전주시가 송천동 예코시티 조성에 따른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을 위해 과학로 선형변경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는 과학로(전미119안전센터~구 송천동역)의 일부 구간인 기무부대에서 전미119안전센터에 이르는 980m 길이의 도로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3일 부분 개통했다.

이번 도로 개통은 전주를 찾는 귀성객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에 도로공사를 마무리한 결과다. 시는 또 과학로 잔여구간인 기무부대에서 구 송천역 구간(550m)에 대해서는 오는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완전 개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예코시티 조성사업 구역 내 송천지하차도를 지난 1월 철거하고 과학로 도로공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16일 봉봉(전미119안전센터)에서 전주방향(기무부대) 2차 차로를 우선 개통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공원화장실 ‘여성안심벨’ 설치

11월까지 78곳에

전주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원 여자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총 6500만원을 들여 관내 공원화장실 78곳에 비상시 안전벨을 누르면 경광등이 울리며 경찰서와 자동으로 연결되는 방범비상벨인 ‘안심벨’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원화장실은 하나의 건물을 돌로 나누고 남·여가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는 형태로 조성돼있어 일부 여성들이 화장실 이용을 꺼려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공원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성폭력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벨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원화장실에 안심벨이 설치되면, 공원화장실 이용중 범죄에 노출되거나 위협을 느낀 여성들이 벨을 누르

전주시, 주요 교량 정밀검사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교량에 대한 정밀검사와 보수에 나섰다.

전주시에 따르면 태평동에 위치한 도로리골교에 사업비 1억2700만원을 들여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99년에 준공된 도로리골교는 진북동 등 원도심과 중화산동을 잇는 핵심 교량으로, 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달 초까지 전면 재포장과 보수, 신축이음 보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신축이음보수가 진행되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분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전주지역 주요 교량과 터널 5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내달 30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정밀점검 대상은 칠방교와 짜전다리, 완산교, 다가교 등 교량과 어은터널로, 균열 여부와 파손 등을 세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정기 농지이용 실태조사

전주시가 농경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2016년도 정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정기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필지수는 총 6071필지(479ha)로, 지역별로는 완산구 2328필지(201ha), 덕진구 3743필지(3,743ha)다. 지목상으로는 전(田) 3227필지(214ha), 답(畓) 2594필지(356ha), 과수원 130필지(13ha), 기타 120필지(7ha)다.

특히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필지와 유휴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공공단체의 소유농지 등에 대한 농지소재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농작물경작과 다년생 식물재배, 휴경, 농지전용 등의 농지이용현황조사와 자경, 임대 또는 사용대, 부분·전부 위탁경영 등의 경작현황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사 결과 처분대상농지에 대

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통지(통지일로부터 1년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농지처분명령(처분부의무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간)을 실시한 후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20%를 납부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처분명령 만료일에 계고 및 청문실시 후)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무료공영주차장

17곳에 방범시스템 구축

전주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료 공영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야간시간대 방범이 취약해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 17곳에 시민들의 안전 보호를 위한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